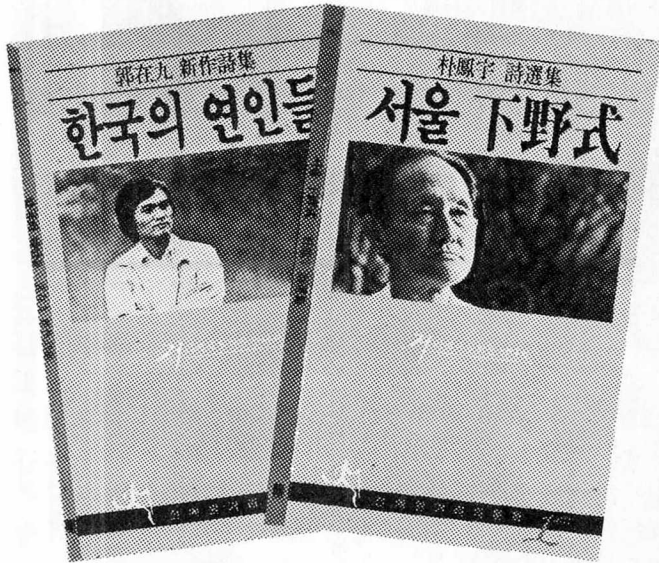


문학의 축제

「시와 소설과 모든 문학의 큰마당」
「거리의 문학」
「절찬리 발매중」



新作詩集

- 1001 高 銀 新作詩集 가야 할 사람
- 1002 文炳蘭 新作詩集 5월의 연가
- 1003 金準泰 新作詩集 녀통일
- 1004 郭在九 新作詩集 한국의 연인들
- 1005 文忠誠 新作詩集 바람부는 아득한 날에
- 1006 高靜熙 新作詩集 지리산의 봄
- 1007 李聖善 新作詩集 별이 비치는 지붕
- 1008 정동주 新作詩集 생존일기

詩集/詩選集

- 1101 朴鳳宇 詩選集 서울 下野式
- 1102 吳世榮 詩集 無明戀詩
- 1103 金祐鎮 詩集 哀樂曲
- 1104 文忠誠 詩集 술래잡기
- 1105 文貞姬 詩集 짚레
- 1106 李聖善 詩集 하늘문을 두드리며
- 1107 朴成龍 詩集 꽃 喪輿
- 1108 許炯萬 詩集 입맞추기
- 1109 李盛夫 詩集 이 볼펜으로

외국문학 시인선

- 2001 許世旭 譯 中共現代 代表詩選 I
- 2002 許世旭 譯 中共現代 代表詩選 II
- 2003 킨터 아이히作·金光圭 譯 햇빛속에서
- 2004 W.S. 렌드라作·丁榮林 譯 분노한 세상

전 예 원 거 리 의 문 학



살아있는 날의 시작

朴婉緒 장편소설

너무도 뚜렷하기에 차라리 잊고 있는 우리네 衆生들의 삶을 소설이라는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어올려, 찌어가는 우리네 意識을 찢어주는 무서운 글의 힘.
— 소설가 朴景利



대통령의 손수건

高時洪 소설집

역사와 개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모아 이 시대의 숨은 비극을 담담히 드러내고 그를 균형있게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역사심리학자적 관점을 지닌 고시홍의 첫 소설집이다.
— 소설가 朴景利



他人的 목소리

盧淳子 첫 장편소설

작품 전체에서 풍겨나오는 긴장감, 밀도, 참신한 문장력, 그리고 인간과 사물을 냉철하게 해석하는 투철한 作家魂이 돋보인다.
— 문학평론가 洪起三



不妊時代

玄吉彦 첫 장편소설

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지식인들의 방황과 좌절, 절망과 고통과 극복의 의지를 역사적 문체와 접목하여 예리하고 선명한 필치로 부각시킨 連作 장편소설.
— 문학평론가 吳生根



진예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569번지 ☎ 562-3637·555-7811